

가정교과의 자유교육적 성격

조 용 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사)

신 상 옥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가정교과를 '생활교과' 또는 '직업교과'로서 규정해 온 종래의 관점을 탈피하여 '자유교과'로서의 성격을 탐색하여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정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은 무엇보다 내재적 가치가 우선되는 활동영역이므로 하나의 교과는 그 교과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얼마나 독자적이며 교육적인가에 따라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가정교과의 교육적 의미를 정당화하고자 서양교육사를 통해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해 온 자유교육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자유교육의 역사와 이념을 고찰해본 결과, 자유교육은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며 교육활동의 원리로 여가의 정신을 수용하여 인간경험의 제약 없는 확충과 자발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그 현대적 의미는 다양한 인간의 본성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을 가장 교육답게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교육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유교과의 범위는 어느 특정 교과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인간의 본성이 녹아 있는 모든 도야재(陶冶材)-지적 요소는 물론 비지적 요소까지도 포괄하는-를 제한 없이 활용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자유교육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가정교과를 가정생활의 향상이라는 실제적인 필요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실현과 관련된 도야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마련한다. 가정교과가 학습자의 교양을 확충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도야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될 때 공교육체제인 학교의 교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삶의 전 영역을 교과의 원천으로 주지적 측면과 비 주지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다양한 교육소재를 통해 가정교과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인간의 삶만큼 폭넓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교과는 인간의 자유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자유교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소재영역으로 인간의 삶에서 생략될 수 없는 의, 식, 주와 같은 일상생활은 물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보다는 수준 높은 정신적 가치를 향유할 목적과 관련지을 수 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정생활의 실천적 측면은 역사성과 사회성이 짙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로서 교육내용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교과는 가정생활에 존재하는 고유한 운영원리에 대한 지적 이해를 추구하여 인간으로서의 교양적 품위를 높이고, 가사활동에 내재한 지적 과정을 경험하게 하며, 가정생활영역에서 이룩된 문화를 근간으로 인간 삶의 의미를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교육적 측면이 파악될 수 있었다. 가정교과는 가정생활이라는 특별한 영역에서 학습자의 경험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